

환경기사와 언론의 회보에 바란다

대망의 임신년 이 밝았습니다.

본지에서는 더욱 더 도약하는 앞찬한해를 만들기위해 신년호특집으로,

아래와 같이 본회나 회보에 바라는 환경계인사들의 고견을
모았습시다. 허심탄회하게 격려와 충고를 해주신 여러분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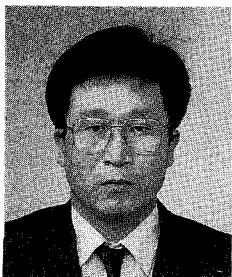
뜻을 기려 올해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난한해동안 관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전국의 회원 및

환경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회원으로사항 적극 대변하길



皇甫永春

<문화일보기자·한국환경기자클럽회장>

92년 새해에도 전국환경관리인들의 모임인
환경관리인연합회가 더욱 번창하길 기
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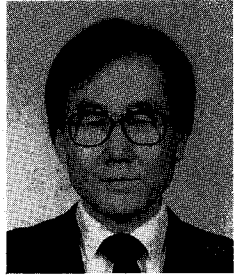
연합회는 그동안 기업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낮았던 환경기사들의 위치를 높히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의 기업체에서는 환경관리인이 관리직이나 생산

직에 비해 푸대접받고 있다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함부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였다고도
분석됩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환
경윤리가 정립돼야 하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환
경기사들이 해야합니다.

그러나 환경기사 홀로 이 어려운 일을 해내기
에는 너무 벅잡니다. 기사들의 모임인 연합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회원들이 연합
회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연합회를 「우리를
대변하는 모임」으로 생각하고 연합회에 대한 뜨
거운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연합회도 회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정성껏 받아
들여 이를 기업체경영인을 비롯해 노동부, 환경
처,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반영시키는 일을
계속 해나가길 바랍니다.

대중의 사랑받는 전문지돼야



金東玟

(서울시립대교수, 본회고문)

「환경 관리인 연합회보」가 그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편집내용과 발행부수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것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치하하며 한편으로 편집과 발행을 위하여 그간 진력하여온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진력을 멈추지 말도록, 송구스럽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10년과 다가오는 21세기의 환경문제 그리고 그속에서 우리 회보가 말아야 할 사회적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회보는, 이제 나라의 환경보전기수(旗手)로서 환경을 걱정하는 여론을 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에게도 널리 읽히고 사랑받는 환경잡지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10년의 경험을 통하여, 나라의 환경을 지킴에 있어서 정치가나 기업인이나 관리는 믿고 의지할 상대가 못되므로, 결국 국민이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그일을 해내

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 회보가, 종래의 환경인을 상대로 하는 정보제공 및 친목의 차원으로부터 한단계를 도약하여, 나라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의 전문지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또 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희망 찬 임신년 신년호의 귀중한 지면을 할애해주신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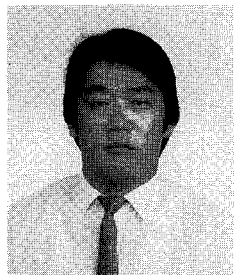
전국의 환경관리인 여러분!

새해에는 꼭 승진하십시오. 그래야만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의 힘도 커지고 우수한 후배도 양성될 수 있습니다. 외롭고 고달팠던 환경관리인 생활을 경험한 바 있고 현재도 환경인의 한 사람인 본인으로서 연합회에 바람이 있다면 강력한 “압력단체”로 성장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배금사상과 물질만능 심리의 팽배로 인한 도덕성 상실과 인륜경시 풍조 등이 만연하고 날로 험악해져 가는 사회환경 속에서도 일선현장의 환경관리인들은 생존을 위한 각개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모습들을 수 없이 목격하며 살아왔습니다.

강력한 압력단체로 성장하길



金基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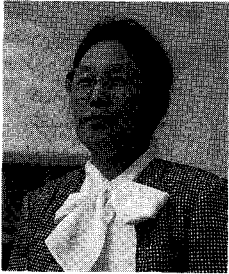
(한국바이오케미칼 대표)

환경관리인 여러분!

더 큰 힘을 모으십시오. 그리하여 정부에 대해 또 기업에 대해서도 환경관리인의 뜻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 사단법인으로 승격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나라 환경보전을 위해 더욱 애써주십시오.

환경과괴감시 역량 갖춰야



朴英淑
(민주당 최고위원)

임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91년 3월 대구시민과 낙동강 유역 주민들을 공포속으로 몰아넣었던 폐놀 오염 사건은 이제 공해문제가 우리 국민의 생명권을 바로 코앞에서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서울 하늘에선 여름에는 LA스모그가, 겨울엔 광화학 스모그가 나타나고, 수돗물에서는 트리

할로메탄이란 발암물질이 나타나며, 땅은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산성화되어 그 경작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은 일차적으로 공해로 피해받는 주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주민들 스스로의 요구가 없이는 정부나 기업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개발과 그로 인한 이익만이 최상, 유일의 가치일 뿐입니다.

이제 이 모든 환경문제를 90년대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2000년대를 기약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난해에는 안면도 핵폐기물 매립장설치 반대운동, 팔당호 골재채취반대운동, 군산시의회의 동양화학 TDI공장 폐쇄결의 등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그 어느때보다 높고 결연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올해는 우리 국민들이 각종 환경과괴를 감시하는 조직적 역량을 갖추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문화정립에 일익을



高炳錫
(사)한국폐수수탁처리협회 회장

환경관리인 연합회가 설립된지 6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연합회의 급진적인 발전은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서 이에 대한 깊은 찬사를 보내는 바이며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난해에 발생했던 낙동강 폐놀사건, 상수도

오염과동 등은 맑고 푸른,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전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환경문제는 곧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이와같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환경관리인의 노고는 아무리 높이 칭찬해도 부족할 만큼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회에 부탁이 있다면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환경오염을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이는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환경관리인 연합회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문화가 정립되길 바라며 환경에 대한 바탕을 만드는 일,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연합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환경오염 문제야말로 온 국민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는 홍보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는 어느때보다도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한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물론 정부측도 여러가지 환경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한편에서는 환경파괴행위가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윤추구에만 급급해 환경문제를 외면하는 기업, 구심점없는 정부의 환경정책 그리고 자신들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무분별한 소비행위가 현재의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합니다. 환경문제는 단순한 법의 제정이나 강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반성하고 환경오염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권익보호위한 법적장치마련을



朴鍾範
(본회고문, 변호사)

가 '환경관리이'이 되어야 합니다.

壬申年백두, 환경인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특히 환경보전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환경관리인들의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법적·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 관리인들이 소신을 갖고 더욱 더 환경업무에 매진할수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쾌적한 환경구현, 그것이 복지사회의 요체임을 절감하고 가장 그늘진 곳에서 오염원과 혈전을 거듭하고 있는 환경관리인들에게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가 소속된 산업현장에서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땀흘려 일해온 환경관리인들의 열정어린 노력의 댓가는 실로 형언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원을 현장에서 박멸해야만 한다는 책무를 게으름 없이 수행해 왔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보전 인식전환에 활력소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연합회를 모체로 해서 각 지역 사회에 협의회를 구성, 스스로의 권익을 신장하고, 정부에게는 환경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것만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됨을 강조해 환경관을 달리하게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환경오염 원인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모든 국민이 환경보전에 나서야 된다고 외쳐온 족적은 이나라

환경구현위한 견인차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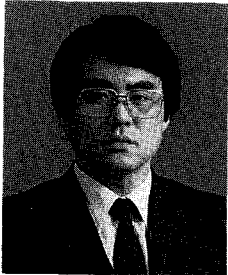
徐正男
(환경경제신문사 발행인)

환경보전의 시금석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1년, 그 한해를 역사속에 묻고 밝고 희망찬 1992년 새장을 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환경관리인들의 결집된 환경보전의 숭고한 행동 철학이 쾌적한 환경구현을 위한 견인차가 되어 주기를…」

지역환경운동에도 동참을...



李相敎
(중앙대 법대 교수)

전국 환경관리인연합회가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우선은 마음 든든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의 노력이 또한 필요할 것인데 두 가지만 들기로 한다.

첫째,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계에서 발전하게 될 저공해기술, 즉 이른바 클린 테크놀로지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자체적인 연수회 등을 통해 선진외국의 동향을 숙지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와의 교류도 도모하였으면 한다.

둘째, 민간차원에서 환경보호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이에 있어서는 단순히 계몽이나 전시적인 행사 보다는 오히려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아니한가 한다. 즉 환경관리인들이 상호간에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배출시설에서의 오염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상호 감시체제를 운영한다면 매우 강력한 민간환경감시 네트워크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관리인은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관련법규에 의하여도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어려움은 환경관리인 스스로의 위상정립을 통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 없는 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도 연합회는 많은 일을 하여야만 한다.

환경보전의 침병되길...



全泰熙
(새론기계공업(주)사장,
(사)한국환경오염방지시설협회 부회장)

격동의 한해가 가고 희망찬 임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환경오염이 전인류의 문제로 부각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의 환경문제는 그피해의 양상이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하게 그리고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그 대책도 신속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생각해볼때, 환경대책은 사전예방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장의 환경대책이 그무엇에 앞서 우선 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산업장에는 법으로 환경관리인을 두어 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환경관리 업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관리인들은 맡은 바 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오늘도 전국의 산업장에서 이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값진 노력에 한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바라건데, 올한해는 나 아니면 내일터의 환경오염을 어느 누구도 막아주지 않는다는 환경보전의 침병의식을 더욱 철저히해 내직장과 내고향의 환경보전에서 한걸음 나아가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을 위해 기여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날 세계 곳곳에서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등 환경문제는 너와 나를 떠나 전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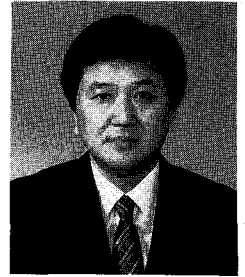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대기·수질오염이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미칠수 있는 각종 유독성물질로 인하여 심화되고 있으며, 삼천리 금수강산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듯이 자연생태계의 기능이 날로 저하되고 있다.

환경오염 예방의 일선에선 파수꾼 격인 환경관리인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인식이 부족한 기업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근무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에는 참으로 슬픔을 금할 길 없다.

그럼에도 신년을 맞이하여 환경관리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환경보전에 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자질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

자질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朴明述

(서울지방환경청 지도과장)

달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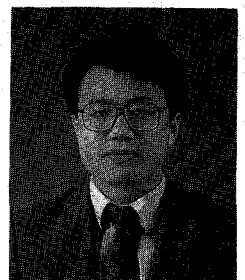
그래야만 후손에게 살아 숨쉬는 강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에 공헌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환경관리인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환경보전에 부단히 정진해 줄 것과 환경업무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 관리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나라 환경보전의 첨병이니 모든 어려움을 꼭 참고 새해에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십시오’라고는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관이나 행정당국, 기업주, 일반시민의 틈바구니에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고생은 고생대로 다하고 공매는 혼자 얻어 맞는 안타까운 속사정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당부말씀을 올릴수있겠습니까?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켜 말썽이 되고 있는 공해공장의 대표가 버젓이 환경보호단체의 무슨 위원 직함을 액자에 넣어 자랑하듯 벽에 걸어두고 있고, 번쩍거리는 경광등을 단 공해기동취재반이라는 일부 사이비 언론이 판을 치고, 녹색지프에 탄 환경직 공무원의 서슬이 시퍼렇게만 느껴지며,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지난번 홍수 때의 수해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불가사리처럼 국토를 잠식해가고, 강이 아무리 오염되어도 내 가족만 생수 사다마시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환경의식이 팽배해 있는 한, 환경관리인이 이 나라 환경보전

환경전반의 모순 극복부터...



張 元

(배달환경연구소 소장, 대전대 교수)

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 다.

새해에는 저부터 크게 반성하고 이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나 인식들이 조금이라도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